

총무원장 자승스님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서 조찬 회동

15일, 축하인사와 민생문제 논의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높이 평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민생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와 불교계 간 관계 개선의 불씨를 틔우는 점에서 주목된다. 총무원 대변인인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조찬을 함께 하며 경제 문제 등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조찬 회동은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자승스님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기획실장 원담스님에 따르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대통령이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보다 나은 정책을 개발해 서민들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전례 없이 중도들로부터 압도적

인 지지를 받고 총무원장에 당선된 것에 대해 축하드린다”며 “이러한 분위기가 조계종의 발전 더 나아가 불교 중흥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조계종이 보여준 깨끗한 선거는 향후 우리 사회 전반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과 이 대통령은 조찬을 하면서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템플스테이 활성화 등 여러 현안

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유치 의의에 대해 설명하자 총무원장 스님은 “세계 각국의 국민과 경제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한국 정신 문화의 진수인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데 종단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회동에는 기획실장 원담스님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호영 특임장관,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 박재완 청와대 불자회장이 배석했다. 조찬 이후 총무원장 스님과 이 대통령은 10여 분간 배석자 없이 독대하며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총무원장과 대통령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조찬 회동을 갖고 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청와대

표준 어린이 영어교재 발간

포교원 ‘헬로 달마 스쿨’ 펴내 본지에도 연재...영어법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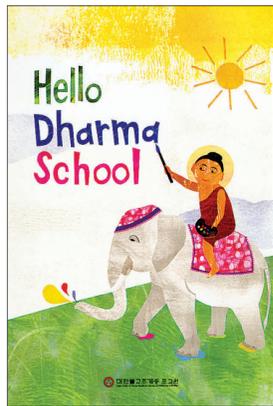
종단차원의 표준화된 어린이 불교 영어교재가 발간돼 어린이 포교에 청신호가 켜졌다. 조계종 포교원 불교 영어교재편찬위원회(위원장 정호스님)는 지난 11일 어린이 불교 영어교재 (Hello! Dharma school(헬로 달마 스쿨)·사진)을 펴냈다.

본지가 포교원, 오산 대각사 영어교재편찬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5월부터 어린이불교신문 코너를 통해 기획연재 하고 있는 ‘헬로 달마 스쿨’은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자연스럽게 영어도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됐다. <헬로...>는 본교재와 학생용 워크북, 지도교사용 영어법회 및 설법 지도안 총 3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삽화를 움직이는 영상으로 제작한 플래시북 CD도 첨부되어 있다.

특히 본교재는 ‘지혜’, ‘자비’, ‘고

집멸도’, ‘수행’ ‘기도’ 등 불교의 개념과 핵심적 교리, 불교 신앙체계 등을 쉽고 정확한 영어단어와 문장으로 표현했으며, 삽화를 활용해 이해도를 높였다. 부교재인 학생용 워크북은 문법연습, 그리기 활동 등 어린이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지도교사용 지도안은 어린이 영어법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또한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포교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07년 불교영어교재편찬위원회를 조직했으며, 오산 대각사 영어교재편찬위원회가 편찬을 담당하고, 김용표 동국대 불교대학원 부학장을 중심으로 이주



경 국제포교사 등이 감수를 맡아 어린이 눈높이에 맞고 시대적 요건에 부응하는 새로운 영어교재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해 왔다.

포교원장 해홍스님은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조기 외국인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어린이불교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어린이 불교 영어교재 발간을 계기로 어린이 포교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나정 기자 muse724@ibulgyo.com

‘출가 권하는 글’ 공모 교육원, 31일까지

일반사회의 우수한 인재를 행자로 영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수행을 복돋울 수 있는 내용의 글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출가를 권하는 글’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종단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출가를 권하는 글을 응모하며, 산문을 기본으로 하되 형식은 제한하지 않는다. 200자 원고지 10~15매 분량으로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교육원에 제출하면 되며, 채택된 원고에는 100만원의 교료가 지급된다.

교육원은 응모 공고를 통해 “출가 수행은 세상에 구원의 빛이 되는 희망의 길이요 성스러운 길이자 희망과 대안의 공동체”라며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생명의 길, 자유의 길, 부처의 길로 안내하는 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장 범인스님은 “최근 출가자가 감소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문제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출가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해를 증진해 젊은이들이 미래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모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하영 기자 rykim@ibulgyo.com

‘불교계 자비물품’ 北으로...

민추본, 15일 5000여 만원 조불련에 지원

최근 정부가 북한에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 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불교계가 남북교류와 민간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교계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경제 국면 해소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교류 활성화와 북한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의 일환으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스님)는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대북 지원 물품 상차식을 갖고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에 쌀 300가마(40kg)와 감기약, 구충제 등 의약품 115상자 등 총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이날 상차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중앙총회회장 보선스님, 민추본 본부장 명진스님, 제19교구본사 화엄사 부주지 영관스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스님 등이 참석해, 불교계의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얻어붙은 남북 민간 교류가 활성화 되기를 기원했다.

상차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북쪽에 살고 있는 동포들도 모두 우리의 이웃”이라며 “남북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이어 자승스님은 “비록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겨울철에 유용하게 쓰여 질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명진스님은 “이번 물품 전달은 스님과 농민들이 함께 지은 쌀을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자비와 동체대비, 화합의 마음으로 남북 관계가 풀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추본이 조불련에 지원한 인도적 물품은 종단의 대북교류기금과 서울 봉은사와 도선사 등에서 모은 기금으로 마련됐다. 지원 물품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사랑난 해소에 도움이 될 쌀은 화엄사와 구례농민회원들이 함께 경작한 ‘통일쌀’ 이어서 대북 지원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이번 민추본의 ‘통일쌀’ 전달은 올해 처음으로 이뤄진 쌀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더욱 남다르다. 한편 대북지원물품은 18일 금강산에 도착해, 인도인수식을 거쳐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될 예정이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사진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1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열린 상차식 모습.

- 동련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현장을 가다 4면
- 부산 사직동 교회홍보 민원분투 물의 빛어 5면

신년해맞이

- 일 시: 2009년 12월 31일(목) ~ 2010년 1월 1일(금) 1박 2일
- 장 소: 신홍사(동주스님), 월봉사(오심스님), 동통사(본명스님) 동해 바닷가 사찰에서 해맞이 후 대한불교 조계종 동축사, 석남사, 운문사 탐방
- 동참금: 5만원/1인, 13만원/3인가족, 15만원/4인가족
- 집결지: 밀양역 31일(목) 오후 4시/1차 5시/2차 8시/3차 울산 고속버스터미널 5시30분/1차 6시30분/2차 8시/3차

“경인년 첫 해맞이 영남알프스 탐방” 템플스테이

Templestay

영남알프스 탐방

- 일 시: 2010년 1월 1일(금) ~ 1월 3일(일) 2박 3일
- 장 소: 대한불교 조계종 표충사, 석남사, 운문사, 신홍사, 통도사, 내원사, 그리고 얼음골, 배내골 탐방
- 동참금: 9만원/1인, 23만원/3인가족, 27만원/4인가족
- 집결지: 밀양역 1일(금) 오후 3시/1차 4시/2차 울산 고속버스터미널 오후 3시/1차 4시/2차

쉬 통합템플스테이

- 일 시: 2009년 12월 31일(목) ~ 2010년 1월 3일(일) 3박 4일
- 동참금: 12만원/1인, 30만원/3인가족, 36만원/4인가족

* 단체 동참은 협의 후 차량지원함 *

주관·주최: 불교신문 경남동부·울산지사(태화문화원)

■ 접수: 국민은행 963001-01-397777 예금주) 불교신도회 농협 882-01-005534 예금주) 파라미타
■ 연락처: 사무국장 011-9509-1555 총무 017-874-5736 간사 010-9162-6801 * 접수 후 연락바람